

‘실거주 규제’ 피하니 한강변 들썩... 신반포2차, 호가 ‘굉충’

(2년)

17년 만에 재건축 조합설립
두 달 새 2억 올라 ‘34.5억’
재건축 기대감에 상승가도

재건축조합 설립으로 실거주 2년 규제를 피하게 된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신반포2차를 시작으로 남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 역시 조합설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4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신반포2차 전용면적 137.66㎡는 34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지난 8월 32억5000만원, 9월 33억원에 팔리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전용 107.31㎡ 역시 한 달 새 호가가 1억5000만원이 오른 29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전용 79.42㎡의 경우 22억5000만원에 매물이 있다. 이 면적형은 지난 6월 20억원, 8월 22억원에 팔린 바 있다. 신반포2차 아파트 매물이 조합설립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으로 강남권 일대 재건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을 앞두고 호가가 오른 것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지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이 지지부진하면서 수 개월 간 가격이 떨어졌다가 조합 설립 소식이 호가가 오른 매물도 많다”라며 “전용 93.71㎡는 지난 8월 25억5000만원에 팔렸다가 9월 25억원으로 떨어졌지만 현

재 25억8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고 전했다.

신반포2차는 지난 13일 단지 내 배드민턴장에서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김영일 조합장을 선출했다. 이날 현장에는 317명이 참석했다. 이로써 신반포2차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17년 만에 조합을 설립하게 됐다. 창립총회는

동의를 제출한 소유주의 20%, 290명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이번 조합설립으로 6·17 대책에 포함된 실거주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실거주 2년을 채운 소유주에게만 조합원 분양권을 주게 했다. 이 규제는 내년부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돼 연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다.

추진위는 대책 발표 후인 지난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 만에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했다. 특히 ‘스타조합장’으로 유명한 한형기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1차) 조합장이 개입하면서 속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반포2차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에 1978년 13개동, 1572가구 규모로 들어섰다. 2003년 재건축추진위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신반포2차는 강남권에서도 손에 꼽는 핵심단지로서 서울지하철 3·7·9호선이 지나가는 고속터미널역도 가까워 재건축

이 끝나면 한강변 입지에 ‘제2의 아크로리버파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신반포2차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면서 남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도 조합설립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남구 압구정5구역(한양1·2차)은 주민동의율 80%를 확보했고 압구정4구역(현대8차, 한양3·4·6차)도 75%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었다. 압구정1구역(미성1·2차, 상가통합)과 2구역(신현대 9·11·12차)은 최근 예비추진위원장과 예비감사 선출을 마무리하고 지난 5일 강남구청으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았다.

개포동 주공5단지과 주공 6·7단지도 각각 오는 24일과 내달 14일에 조합설립을 위한 총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이들 단지는 조합 설립 요건인 주민동의율 75%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관계자는 “연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면 4년 내 이주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2024년 이주,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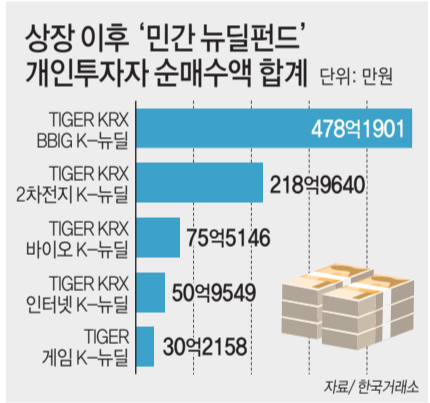
“개미들 줍줍”... 민간 뉴딜펀드 흥행하나

개인, 일주일 만에 854억 사들여
BBIG 담은 ETF 등 잇따라 등장
“중기적으로 강세 가능성 높아”

지난 7일 상장한 5개의 민간 뉴딜펀드에 일주일간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금액만 854억원에 달했다. 개미들이 몰리면서 민간 뉴딜펀드가 흥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TIGER KRX BBIG K-뉴딜·TIGER KRX 2차전지 K-뉴딜·TIGER KRX 바이오 K-뉴딜·TIGER KRX 인터넷 K-뉴딜·TIGER KRX 게임 K-뉴딜 상장지수펀드(ETF) 등 5개의 민간 뉴딜펀드의 개인투자자 순매수액은 853억8394만원이다.

이 중에서도 TIGER KRX BBIG K-뉴딜은 상장 첫날(7일) 개인 순매수 금액이 224억7442만원을 기록했다. 개인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지난 2007년 상장한 KODEX 차이나 H(331억원), 2016년 상장한 KODEX 200선물인버스2X(239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이날 동시 상장한 TIGER KRX 2차전지 K-뉴딜도 개인투자자 순매수액이 61억7192만으로 역대 4위를



기록했다.

앞서 TIGER K-뉴딜 시리즈는 한국거래소가 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KRX BBIG K-뉴딜지수’에 기반한 첫 금융상품이다. 거래소는 지수 개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미래에셋자산운용에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한국판 뉴딜의 수혜가 기대되는 BBIG(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비중을 높여 미래 성장산업의 주도주들에 집중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권오성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마케팅부 부장은 “BBIG 주요 종목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디지털 커넥트 환경이 조성돼 국내 증시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경쟁력을 갖춘 BBIG 시총 상위 기업들 자체도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판 뉴딜정책과 맞물려 성장 모멘텀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잇따라 민간 뉴딜펀드를 내놓고 있다. 지난달 15일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순자산 33억5500만원 규모의 ‘삼성뉴딜코퍼아펀드’를 출시했다. 지난달 25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신한BNPP 아룬다운SRI그린 뉴딜펀드’를 내놨다. 또 삼성자산운용은 ‘에프앤가이드 K뉴딜지수 ETF’(가칭)를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운용이 금융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와 함께 개발한 지수를 바탕으로 BBIG 4개 업종별 5개씩 총 20개의 종목을 편입한다.

문종진 교보증권 연구원은 “과거 정권별 핵심 정책을 기반으로 만든 주요 지수 및 ETF의 사례를 봤을 때 BBIG K-뉴딜 지수 ETF의 중기적인 강세 가능성이 높다”며 “뉴딜 관련 정책이 도입 초기이고, 정책 지원이 지속될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대우건설, 독자 고부가 시공기술 홍콩 수출

‘초고층 시공 중 변위관리’ 기술

대우건설이 독자 개발한 BMC(초고층 시공 중 변위관리) 기술을 홍콩 고층 복합타워인 머레이 로드 타워 공사에 적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BMC는 초고층건물 시공 중에 발생하는 높이·기울기 등의 변형을 사전에 예측하는 기술로, 건물의 안전성을 높이면서 공사 기간과 비용은 줄일 수 있는 고부가가치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건물이 처음 계획된 크기와 형태로 완성,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공 과정과 시공 후에 얼마나 변위가 발생되고 기울어질지 예측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측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건설에 사용되는 재료의 변형을 파악해 반영해야 하며, 예측이 완료된 이후에

는 그 값을 근거로 시공 전에 건물의 보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실제 시공 과정에서 관찰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값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그에 따라 보정계획을 변경해야 될 수도 있어 실제 의도한 대로 건물이 시공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술이 필요하다.

대우건설이 기술을 제공할 이 빌딩은 홍콩의 대표적인 부동산 개발업체 헨더슨 랜드 디벨롭먼트가 개발하며, 대지면적 4만3200㎡에 지상 36층, 지하 5층, 높이 190m 규모에 달한다. 머레이 로드 타워는 홍콩 정부로부터 매입한 주차장 부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홍콩 중심업무지구 MTR 중앙역 인근에 위치한다.

/정연우 기자

현대건설 친환경 실내놀이터 ‘H 아이숲’ 첫 선

김포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적용

현대건설은 지난 8월 입주를 시작한 김포 ‘힐스테이트 리버시티’에 ‘H 시리즈’ 중 하나인 ‘H 아이숲(사진)’을 적용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지난 8월 입주가 시작된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일원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리버시티’는 지하 2층~지상 21층, 52개 동, 전용면적은 68~121㎡, 2개의 단지, 총 3510가구로 이뤄진 매머드급 대단지로 불린다.

단지에는 브랜드 최초로 ‘H 아이숲’이 적용됐다. ‘H 아이숲’은 숲속처럼 쾌적한 환경을 갖춘 실내 놀이공간으로 숲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 천정형 공기청정기가 설치됐다. 모든 놀이기구들이 편백나무와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전체적인 디자인이 곡선으로 설계



돼 안전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친환경 통나무와 버섯 모양의 미끄럼틀, 볼 풀장 등 숲속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도 재미를 더한다.

‘H 아이숲’은 현대건설의 상징색인 노란색과 녹색을 활용해 ‘새싹이 자라 녹음이 되는’ 모티브로 발전시켜 설계했다. 아이들은 나무 타기, 언덕 구르기, 돌 틈 사이 숨바꼭질 등 자연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정연우 기자

에탁원, RPA기반 업무 자동화 사업 추진

증권유관기관 최초 도입

한국에탁결제원이 ㈜에코아이티와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RPA는 작업자의 PC 환경에서 수행되는 일련의 작업을 대신 수행하는 소프트웨어(S/W)로서 업무 생산성 개선

의 주요한 도구로 활용된다.

이번 사업은 다수의 인력이 투입되거나 혹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업무 생산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인력자원을 고부가가치 업무에 투입하기 위해서 추진한다.

에탁결제원은 증권유관기관 중 최초로 RPA 솔루션을 도입했다. 또 블록체

인, 빅데이터, 챗봇, 인공지능 등 이른바 4차 산업 혁신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의 검증하고, 이를 활용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해 증권산업의 발전도 모할 계획이다.

최경렬 에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 상무는 “이번 RPA 도입 사업을 통해 우리 회사 주요 고객들의 업무 만족도 개선은 물론, 내부 직원들의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혁신기술 적용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